

기준들

* 10/16 (금) 고전 ② 7-11장

편지 머리말

1:1-9 인사말

편지 본론 ① 전해들은 소식

1:10-4:21 교회 내의 분파

5-6장 음행과 소송

편지 본론 ② 전해 받은 편지

- ▶ 7장 결혼
- ▶ 8-10장 자유와 덕
- ▶ 11장 예배와 성만찬
- 12-14장 은사와 사랑
- 15장 부활

편지 마무리

16장 마무리와 인사말

예루살렘 교인을 위한 헌금

예행 계획과 추천 편지

마지막 경고와 인사

Before 출치며 읽기

바울이 최우선으로 삼는 행동과 결정 기준들을 확인하며 통독합니다.

After 묵상하기

나의 <주요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고린도 교회는 실상 매우 세속적인 공동체였습니다.

교회의 주도권은 <강한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사회 유력층, 재산가, 식자층, 늘 선택/결정권을 가진 사람들.

세상에 <자랑>할 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식과 지위, 사회 활동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유라는 명분으로 이전의 삶과 쾌락들을 지속했습니다.

신앙생활과 교회 운영도 세상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훈계하거나 처단하지 못했습니다.

<강한 자>들의 지위와 영향력, 재산과 후원이

교회 유지에 매우 중요한 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전2:14)”

참고도서

BST 고린도전서(IPV)

How 고린도전서(두란노)

현대성서주석 고린도전서

백주년기념주석 고린도전서

그 <누룩>은 공동체를 오염시킬 만 한 것이었습니다(5:6-8).

교회는 예수와 성령으로 거듭났음을 기억해야 합니다(6:11).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성전>된 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6:19)

권리와 자유가 주님 살리신 형제/자매보다 먼저일 수 없습니다(8:11).

내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그릇된 자신감과 교만보다,

공동체의 한 지체임을 깨닫고 겸손히 덕을 세워야 합니다(10:23-24).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를 쳐 복종합니다(9:23, 27).

억누름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위한 자발적 절제입니다(9:12).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빌3:7-8). ”

통독의 배경

5장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일

〈아버지의 아내〉는 계모로 추정된다. 아버지의 사망여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만일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라면 단순 음행과 더불어 재산상속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당시에는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 아내가 유산을 상속받았고 자녀의 경우 뜻이 많지 않았다. 이 여인이 재혼할 경우 재혼한 남편에게 재산이 넘어가므로 가문의 재산은 모두 남에게 넘어간다. 때문에 아들은 계모와 혼인관계를 통해 재산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 것이다. 계모와의 결혼은 당시 세상에서조차 매우 비난받는 일이었다. 이 남성은 법이나 사회 이목을 무시할 만큼의 유력자였을 것이다.

6장 성도의 법정 고발 사건

당시 법적으로 고발하는 일은 재산가나 권력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평민조차 법정에 설 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빈민들은 고발을 당하면 속수무책이었다. 고발사건이 진행되면서 자기 세를 뽑내려는 성도들이 부덕들이 만방에 드러났을 것이다.

8장 우상에게 바친 제물

〈강한 자〉들은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을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데 이용했다. 그들은 음식만 먹을 뿐 아니라 〈우상의 집〉, 신전을 찾아가 음식을 먹었다. 신전들은 제사 후 종교적 연회를 열었는데 일종의 사교모임이었다. 그들은 성도가 되기 전 해오던 관계와 모임, 활동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11장 여자가 수건으로 머리를 가리는 일

당시 시대적 배경을 감안해 보아야 한다. 유다 여자들은 공적으로 머리에 수건을 써야만 했다. 남성을 우위에 두는 신학적 해석과 시대 배경이 반영된 행위였지만, 통념 상, 〈자기의 고귀한 위치를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으로 여겨졌다. 바울은 이를 존중하되, 창조 신학의 관점에서 남녀가 동등하다는 사실을 언급한다(11-12절).

주님의 만찬에 대하여

주님의 만찬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며, 형제 자매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기다리고 결단하는 것 등의 의미를 지닌 예식이다.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개인의 집에서 이루어지곤 했는데 초대자는 주로 유력자들이었다. 저택의 식당에는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없어 안마당까지 사람들이 모여 식사를 하도록 했다. 초대자와 비슷한 지위의 상류층들은 안쪽 식당으로 초대되었다. 하류층 교인들은 안마당 쪽으로 안내되었고 양쪽에 제공되는 음식이 달랐다. 심지어 노동자, 빈민 성도들이 일을 마치고 만찬에 동참했을 때에는 이미 음식이 동난 상태였다. 이는 당시 고린도교회의 파당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었을 것이다.

통독의 맥 잡기

7장 전해 받은 편지 : 결혼에 대하여

7:1-16 기혼자, 홀로 된 남녀, 결혼한 그리스도인/불신자 부부에게

7:17-24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7:25-38 약혼한 커플들에게

8장 우상에게 바친 제물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9-10장 공동체 의식 : 복음과 덕, 지체들이 최우선이다!

9:1-12 나도 사도의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9:13-18 그러나 권리를 포기했다.

9:19-27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10:1-22 우상 숭배에 대한 교훈

10:23-33 덕을 세우고, 많은 이의 기쁨과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11장 예배와 성만찬

11:1-16 너울을 쓰는 문제 : 관례와 신학

11:17-34 주님의 만찬을 바로 알고, 바로 행하라.